

Minja Gu

구민자는 서울에서 살고, 작업한다. 그녀의 작업은 매우 섬세하고 심오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일상으로부터 거의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구민자는 사회가 무엇을 이용하고 버리는지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다. 그녀는 매일 매일의 소비주의 속에서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많은 폐기물들(예를 들어, 버려진 커피잔 혹은 비닐 봉투)을 우아하고, 위트있고 시적으로 재활용한다. 그녀의 물리적 예술 생산에 더하여, 그녀는 병렬로 수행되는 혹은 사회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때 기생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활동들을 시작한다. 이것들은 그녀의 여가시간에 하루 반 동안 마라톤을 끝마치는 것, 매체가 계속 주목받기에는 너무 느리고 충분히 웅장하지 않은 시간-주기, 그리고 동갑내기 여성들이 옥상에서 같이 개최하는 꽤 신빙성 있고 완전히 진부한 열 두 시간짜리 사랑에 관한 '심포지엄'을 포함했다.

- 바시프 코르툰(Vasif Kortun)

Beautifully in the sky - performance/ video (2005)



Air parcel - video (2007)



42.195 - performance/video (2006)



Symposion -performance/ video/ publishing(2007,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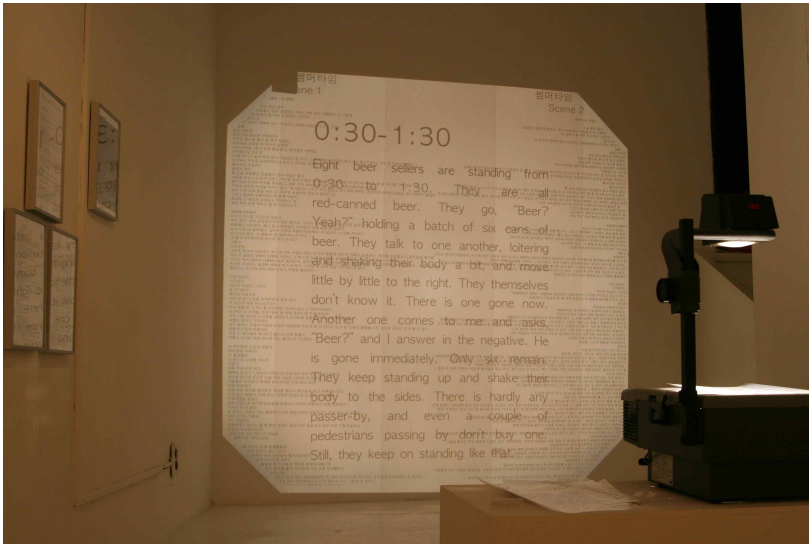
the world of job - performance/ photograph(2008)



Secret garden -installation (2008)



Identical times - text/ installation (2008,2009)



24 hours - performance/ video (2009)

